

투데이 칼럼

물놀이, 첫째 안전! 둘째 안전! 셋째도 안전!

지금 한반도는 폭염과의 전쟁 중!
 낮에는 폭염경보! 밤에는 열대야!
 전국 모든 국민이 가마솥 더위에 땀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물놀이장을 찾게 되고 특히, 인근에 있는 계곡과 하천을 많이 찾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잇달아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가족과 함께 놀러온 어린이들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는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소방청에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구급활동 분석결과를 보면, 2017년 익수환자가 5년 전과 대비하여 29.9%(2013년 1,434명 → 2017년 1,863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익수환자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863명 중 물놀이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774명(41.5%)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왜 그럴까?
 주요 원인은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로 안전 불감증이 문제이다.



최길웅
 고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물놀이 안전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순간!
 내 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둘째, 음주 또는 식사 후에 곧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려 물에 들어가지

말고 구명환이나 물에 조금 채운 페트병에 줄을 묶어 던지고 줄을 당기도록 한다. 무리한 구조활동은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항상 같이 놀도록 하며, 요즈음 1~2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유아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행동하고 뛰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순간에 자녀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구명조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시작되었다.
 물놀이를 가기 전에 자녀들과 물놀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 119안전체험관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를 체험을 통해 대처법을 배우는 시설이다.
 아이들과 재미있는 체험을 통하여 물놀이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이면 수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도 아주 좋다.
 이 교육은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물 위에 떠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물놀이 사고는 조금만 방심하면 일어난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독자재언

이륜차 인도주행 등 대표적 무질서 집중단속

경찰은 이륜차의 대표적 무질서 행위인 인도주행(보도침범)·신호위반·중앙선침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되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은 하절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물론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면 대형 바이크족이 동호회 단위로 위력을 과시하는 가하면 청소년층까지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좋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몇가지 안전수칙을 나열해 본다.
 이륜차 특성상 균형을 잃기 쉽고 작은 흔들림이나 요철에도 쉬 전도되는 등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보다 요구된다.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은 안전모 착용이다.

이륜차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부위는 머리나 목 부분이며, 특히 머리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지만 착용시 머리나 목부분의 부상을 예방하거나 부상 심각도를 덜어 준다.
 또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확실하게 매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륜차 뒷좌석에 태우지 않아야 하며 야간 운전에 대비하여 안전모에 반사제를 붙이면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어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
 야간 또는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짙은 색상의 안경 착용을 피한다.
 가능한 무릎보호대를 착용 사고시 다리 골절이나 무릎손상을 예방하고복장은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전조가 잘되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눈에 잘 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자신의 안전운행이 최우선으로 단속경찰의 눈을 피해 운행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버리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시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극단기후’로 고통받는 아시아



베트남의 홍수, 중국의 태풍 및 일본의 열파 등 아시아 여러 곳에서 우리의 폭염보다 심한 극단적 기후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CNN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 이후 열대성 저기압 상태의 손편이 북부 지역에 홍수와 신사태를 일으켜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꼼수 막아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주이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지도 오래 되었을 뿐더러 그 성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쪽 인사들이 아직까지 배아파 하고 있으니 해괴한 일이다. 재반에 전용 회의실을 마련하는 등 그 움직임을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없지 않았다. 별 일 아니냐고 믿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뒤통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서울쪽 인사들이 전용회의실을 따로 두는 것은 그 의의가 있어서일 거라 불쾌해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흔들기가 막장 수준에 이르렀다.
 전주 이전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했다니 기금운용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연금 본부가 서울 쪽에 있을 때 낸 성과와 비교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2013년에 41%, 2014년에 52%, 2015년에 46% 등의 성과를 낸 것에 비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첫 해에만 수익률이 72%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력 본부’라니, ‘전주이전 리스크’라니 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그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저들의 심보가 심히 사납다는 것을 드러낸 뿐이다.
 전북도는 잇달아 반박되는 저들의 직대를 좌시해선 안된다.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다시 서울에 쫓겨 가면 전북혁신도시의 미래가 불안해진다. 저들이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흔들려 하고 있는데 거만히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 발전을 이롭게 하는 동력이 될 게 분명하다. 혁신도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제 자리에서 우뚝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다 하거나 남광한 노릇이다.
 전북도는 꼼수를 부리는 저들에게 분배를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을 이끌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생각해 먼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혁신도시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정책이 더욱 격화되면 전북도는 직살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도민의 기대주임을 정부를 상대로 각인시켜야 한다.

전북지역 1인 총소득 최하위 수준

전북도의 인원이 요청되는 때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소득이더라도 편하게 있는 지 궁금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약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를 모아냈다.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흐른 것들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 내내 사업추진을 건의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고 과연 몇 번이었는가.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도민의 요구를 헌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막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겐 뚜렷한 목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헌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전남 지역 발전 사업의 뒤 앞장에 있는 새남금융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는 모습을 보자면 답답하다. 그리고 새남금 사업이 도민의 소득과 연관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미미하다.
 전북도는 지역 소득을 구체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새남금 헌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큰 일거리마다 외지업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대서는 곤란하다. 새남금 개발공사가 늘어선 현장이 달라지리라는 기대인데 그게 순조롭게 될 지 두고 볼 터이다. 물론 그게 도민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그 공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빙빙 고장이나 아니냐는 소문이 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7년 넘게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힘을 쏟는 주목적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헌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그게 소득과 관련된 영향력이 없거나 있어도 꼭대기 무가지하다. 또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거짓 희망이 되게 해서선 결코 안 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